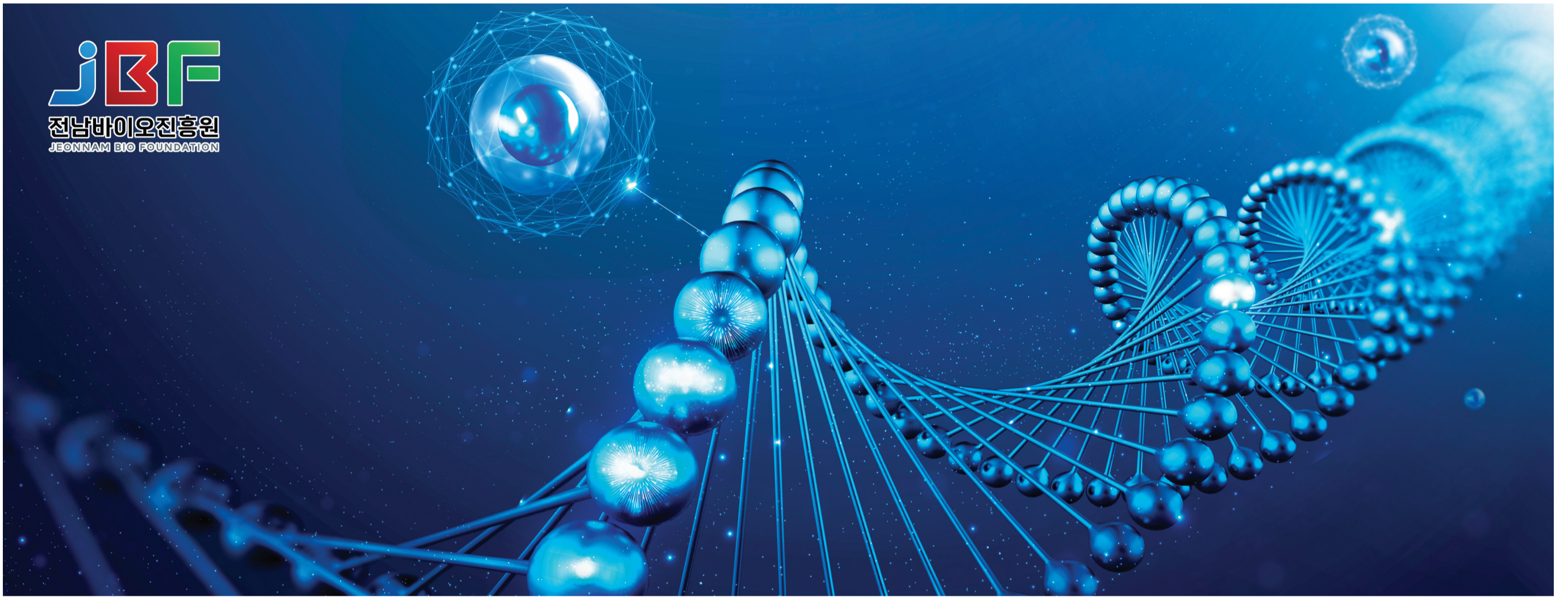


# 국내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K 바이오 세계에 알린다



2002년 설립 후 병원·기업 등 유치 경쟁력 갖춘 바이오 산업 여건 조성

세계적 바이오 대기업 유치 관련 윤호열 원장 취임 후 본 궤도 안착

연구개발·기업·생산·투자 등 지원 원스톱 솔루션 제공 전문기관 성장

전남도가 생물, 즉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이 2000년대 들어서다. 그 첫 단추는 2002년 생물산업육성정책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지금의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전신이었다. 더디지만 20여 년간 전남은 이 재단을 중심으로 화순에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 바이오산업의 주축 요소들을 결집시켜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해왔다.

백신, 면역, 헬스 케어, 미생물 등 정부의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자리를 잡았고, 여기에 전임상과 임상, 인증이 가능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동물대체시험센터, 화순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섰다. 바이오 창업을 지원하는 개방형의료혁신센터·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게스트하우스·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교육동 등도 올해 말 또는 2025년까지 모두 준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해 임상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뒤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까지 갖춘 곳은 전국에서 화순이 유일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대구신서혁신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인천 송도 등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세계적 대기업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2023년 3월 제8대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취임한 이후 진흥원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민간기업에서만 35년을 근무한 윤 원장은 먼저 조직을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한 뒤 곧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윤 원장은 세계적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미셸 라가드와 서울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분야 분석기기 및 실험장비 제조와 기술서비스



김영록 전남지사와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이 지난 2월 1일 세계적 바이오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미셸 라가드와 서울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바이오 우수 인력 양성 산·학·연·관 토론회 참석자들. 이날 토론회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중심이 돼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 참여해 연간 10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오 우수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를 하는 세계적 과학기업으로, 연매출 400억 달러이며 포춘지(Fortune)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97위, 과학기술 분야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화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연계·결합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일거에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2년 설립 후 20여 년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2002년 전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으로 시작한 현 (재)전남바이오진흥원은 2006년 식품산업 연구센터(나주), 2007년 생물의약품연구센터(화순), 2009년 천연자원연구센터(장흥)·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곡성), 2010년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성)·해양바이오연구센터(완도) 6개 센터를 순차적으로 갖춰나갔다. 각 지역이 가진 특징, 특산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센터를 분산 배치했으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기능을 맡고 있다. 지난 2009년 화순 GC녹십자공장 준공, 2010년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2013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설립 등 민간기업 유치, 정부 공모 선정, 관련 정부 기관 설립 등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지역 기업도 키워냈다. 박셀바이오, 바이오FD&C 등은 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대표적 기업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0여명 추가 채용 중이다. 석박사 연구진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바이오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 2026년까지 바이오 기업 5,107개 육성, 바이오 생산액 5.7조원 달성, 바이오 일자리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이 가진 강점...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근간=전남이 바이오를 주축산업으로 삼아 전력을 다해 키워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원천적으로 가진 전남의 자원, 여건 때문이다. 전남은 '생명의 땅'으로 5,200여 종의 천연물이 있으며, 해조류의 92%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천연물, 해조류 등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가 되며, 오랜 기간 이들 자원이 민간 차원에서 가공·저장되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순은 특히 개발, 생산, 협력 네트워크가 갖춰진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병원, 전문기관, 기업 등이 모두 갖춰져 있어 인천 송도, 충북 오송 등 다른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보다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4년 제2의 창업, 전남을 바이오 헬스 케어 거점으로=진흥원은 올해를 제2창업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기업 지원, 연구개발, 생산 지원 기능에 창업·투자·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 헬스 케어 거점'이자 '백신 면역 치료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다만 화순 백신산업특구 일대 100만평의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지정, 2023년 지정된 WHO 글로벌바이오벤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바이오 전문 인력의 대규모 배출, 광주의 AI(인공지능)·의로기기와 전남의 바이오의약품이 광역형 클러스터로 결합하는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만의 레드·그린바이오 국내 넘어 세계에 널리 알릴 것”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 제8대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 2023년 3월이다. 교수,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이 아닌 민간기업, 그것도 국내 바이오 업계의 선두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남부 투까지 올라섰던 '시장주의자'가 전남의 주축산업을 이끌게 된 것이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화학을 전공한 그는 뉴욕주립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를, 스위스 로잔경영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요즘 말로 '문·이과 통합 인재'에 해당한다. 윤 원장이 12년간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3년 3조7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부사장이었던 2022년에는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2023년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경력은 이미 '세계적'이라는 의미다.

그런 그가 지난해 원장 공모에 참여해 오로지 검증된 실력 하나로 자리에 앉았다. 윤 원장은 세계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미국의 보스턴(1000여 개 세계적 바이오 기업이 2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에 미치지 못하는 어렵지만, 화순을 보스턴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아시아의 거점으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조직의 재정비였다. 그는 우선 센터별 복합체 형태였던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산하 6개 센터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었다. 원장, 6명의 센터장, 2명의 실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구성한 것이다. 외부인사가 주로 맡았던 센터장도 내부 승진으로 바뀌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원이 20~30명에 불과한 소규모 센터는 재정 결합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그가 한 것은 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20년 만에 명칭을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바꾸고,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합)도 새롭게 고쳤다. 경영기획실은 4개 팀 20여 명으로 증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본사를 나주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제2창업을 다짐했다.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기업들과 함께 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기관·기업 등과 보다 더 넓고 깊게 접촉하기 위한 그의 결단이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는 이러한 윤 원장의 파격적인 시도를 모두 수용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가 1년여 간 시도한 모든 것이 전남 바이오산업의 성장·발전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주소지를 나주로 옮겼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30년 이상 과전에 살았던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을 찾아 도민으로 거듭난 것이다. 50여 분간 계속된 인터뷰는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됐다. 고개를 끄덕이며, 윤 원장의 비전과 실현 방안에 공감하



다가 약속한 시간이 모두 지나갔다.

다음은 일본일담.

-벤치마킹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진흥원을 역량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했다. 우선 비교적 잘 나가는 공공기관 8곳을 찾아 직접 둘러보고 이 가운데 3곳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공통분모를 찾았다. 하나는 비전과 목표가 도전적이었고, 둘째는 리더십이 안정적이고 강했으며, 셋째는 시장과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전문 지식 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협안과 개선안을 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센터장·팀장·실무자를 수시 면담했다. 이러한 노력을 진흥원 가족들이 인정하고 따르준 것에 감사한다.

-22년간 그대로였던 CI와 명칭을 과감하게 바꿨다.

▲눈으로 보는 것이 90%다. 변화를 하려면 오랫동안 그대로 써왔던 명칭과 CI를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번쯤은 과거에서 탈피해야 한다. 바이오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의한" 산업이다. 그러한 점에서 수도권, 해외까지 사람들에게 진흥원을 인식시키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레드 바이오, 그린바이오 등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 준비를 마치고 올해를 '제2창업 원년의 해'로 삼았다. 20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바이오특별시 화순'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전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천연물, 맛난 먹거리와 낙박한 인심이 결합된 생명의 땅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치료와 치유로 확장된 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을 추구해온 전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전남의 바이오는 숨어있던 보석이며, 앞으로 이를 널리 알리고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